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환경 내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 효과*

김다운 한현섭 김희원 이초원 유민서 윤이재 조혜린 이화령 신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지위 추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 의료, 재정적 자원 등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즉, 지위는 개인의 번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기회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지위의 이점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이 지위의 이점이 두드러지는 환경, 즉 경쟁 강도가 높은 환경에 속한 개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총 2개의 연구를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자신이 속한 환경을 경쟁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연구 1)과 미국인(연구 2) 참가자 모두에게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심리적 혜택이 그것의 환경 내 가치 및 유용성에 달려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위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를 뒷받침해 준다.

주요어 :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만족도, 행복, 지각된 경쟁성

*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 학술동아리 싸이렌(Psylan)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교신저자: 신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용봉로 77, E-mail: jjeunshin@jnu.ac.kr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대표적인 욕구다(Anderson et al., 2015; Kenrick et al., 2010). 지위는 타인의 인정과 명성에 기반한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개인의 사회 내 가치 및 유용성이다. 뛰어난 지식과 기술, 리더십 등의 유능함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사람들은 대체로 공동체를 이롭게 할 것으로 여겨지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람에게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Leary et al., 2014; Ridgeway, 1984). 따라서 대부분 사회에는 지위 불균형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타인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Gruenfeld & Tiedens, 2010; Leavitt, 2005). 이에 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지위 추구에 관심을 가져왔다(Maslow, 1943; Kenrick et al., 2010). 대표적으로, Anderson 등(2015)은 지위 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별이나 인종,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자신의 집단 내 위치를 기민하게 살피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일반적인 친애 및 소속 동기와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자연히 지위 동기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거나 위협받는 것은 다양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기 쉽다. 예를 들어, 낮은 지위에 속한 사람일수록 우울(John et al., 2012; Subramanyam et al., 2012)이나 불안 및 스트레스(Baum et al., 1999; Liu et al., 2023)가 높으며, 심혈관계 질환(Cooper et al., 2010; Ghaed & Gallo, 2007)에도 취약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많을수록 낮은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Marmot, 2004). 이와 반대로, 지위의 획득은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과 관련된다.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며(Leary et al., 2001; Mahadevan et al., 2021), 더 나아가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한다는 것이 밝혀졌다(Anderson et al., 2012; Marmot, 2004; Melchior et al., 2013). 이러한 지위

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긍정적 관계는 집단의 특성(예, 학급, 직장, 지역사회 등)이나 문화에 보편적이고(Anderson et al., 2012; Tay & Diener, 2011), 중단 관찰 및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소속감을 통제하고서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Anderson et al., 2012)는 지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이는 주로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에 기반하며,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추론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일수록 대체로 더 큰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하며(Barger et al., 2009; Diener, 1984; Luhmann et al., 2011), 이는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 즉 삶의 만족도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Kahneman & Deaton, 2010; Schimmack et al., 2008). 예를 들어, 학업 성취 및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Crede et al., 2015; Salinas-Jiménez et al., 2013), 직장 내 성취가 높을수록(Abele et al., 2016), 그리고 소득 수준이 지역사회 및 국가 내 다른 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개인일수록 자기 삶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Boyce et al., 2010; Firebaugh & Schroeder, 2009). 보다 최근에는 지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며(Anderson et al., 2006), 객관적 지위보다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Adler et al., 2000; Tan et al., 2020). 이에 점차 많은 연구에서 MacArthur 사다리 척도(MacArthur ladder SES; Adler et al., 2000)를 활용한 주관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이와 맥을 같이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위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에 있

다(Sapolsky, 2004). 지위는 교육, 의료, 사회적/물질적 자본 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Bradley & Corwyn, 2002; Chen et al., 2022). 이는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획득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개인의 잠재력 및 전망도 포함한다(Hurd, 2006). 즉,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자원 접근성에 기반한 지위의 대표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위는 개인에게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흥미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통제감을 주며(Johnson & Krueger, 2005; Lachman & Weaver, 1998; Kraus et al., 2009), 이는 부정적인 사건 및 정서 경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Lantz et al., 2005). 반면에 낮은 지위를 가진 개인은 다양한 위협과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되며,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많은 외적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지위는 타인의 관심과 주의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Berdahl & Martorana, 2006; Foulsham et al., 2010). 지위는 타인을 판단하는 데 중시되는 정보로, 사람들은 표정, 억양, 외모나 자세와 같은 단편적인 단서만으로도 상대의 지위를 추론할 수 있다(Bjornsdottir & Rule, 2017; Kraus et al., 2017; Mast & Hall, 2004). 일례로, 사람들은 약 1분간 상호작용하는 두 명의 대학생을 관찰한 뒤 이들의 지위를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며(Kraus & Keltner, 2009), 신발이나 옷의 사진을 보고 소유주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했다(Gillath et al., 2012). 사람들은 타인의 지위를 잘 추론할 뿐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더 바람직한 리더(Anderson et al., 2006; Anderson et al., 2015에서 재인용), 친구(Yu & Xie, 2017), 잠재적 배우자(심경옥, 전우영, 2015; Buss, 1989)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집단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Oldmeadow et al., 2003), 자신감 있는 태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더 높이 평가받는다(Belmi et al., 2020).

그러나 이러한 지위의 효용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지위와 행복의 관련성 또한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Diener et al., 2013; Easterlin, 2001). 일례로, 54개국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Howell & Howell, 2008)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낮은 교육 수준보다는 높은 교육 수준에서, 그리고 빈곤한 국가보다는 부유한 국가에서 더 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와 행복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절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위는 언제, 누구의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예측 변인일까? 그동안 선행 연구를 통해 지위의 효과를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보고된 바 있으나(Cheung & Lucas, 2015; Howell & Howell, 2008; Soto & Luhmann, 2013), 대부분이 성별, 나이, 성격 등 주로 개인의 내적 특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는 개인 외부의 환경적 특성, 그중에서도 특히 '경쟁 강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위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지위로 인한 혜택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가 환경 내 지각된 경쟁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각된 경쟁성

지각된 경쟁성(perceived competitiveness; Murayama & Elliot, 2012)은 자신이 속한 환경이 얼마나 경쟁적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나타낸다. 지각된 경쟁성은 특히 '목표'의 추구 및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특성으로, 타인과의 비교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따라서 환경 내 경쟁 강도가 높거나 높다고 지각하는 것만

으로도 성취에 대한 동기와 행동 경향성이 유발된다(Murayama & Elliot, 201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지각된 경쟁성은 성취 접근 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s)와 성취 회피 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s)를 모두 활성화하며, 이는 각각 개인의 성과 및 안녕감 향상과 저하로 이어진다(Elliott et al., 2018; Sommet & Elliot, 2023a). 연구자들은 이러한 양면적 현상이 지각된 경쟁성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달려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경쟁적인 환경은 개인이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위협으로 여기는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Blascovich & Mendes, 2000; Murayama & Elliot, 2012). 이러한 차이를 빚어내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개인이 가진 자원의 양을 들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 개인은 경쟁을 도전으로 인식하여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자원이 부족한 개인은 경쟁을 위협으로 인식해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Hangen et al., 2016; Murayama et al., 2021). 이를 통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지위'가 제공하는 심리적 혜택이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 심리학적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Berman et al., 2008; Martens et al., 2011; Oishi, 2014; Santos et al., 2017). 이에 따르면, 특정 속성 및 자질의 가치나 유용성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 좌우되며, 대체로 환경의 필요나 요구와 일치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여겨진다(Murray & Schaller, 2012; Sortheix & Schwartz, 2017). 예를 들어, 외향성은 행복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성격 특질이지만, 전염병 위협이 높은 환경에서보다 위협이 낮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유리하며(Han et al., 2023; S. Liu et al., 2021),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구성원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 행복에 더 유리하다(Jokela et al., 2015). 이와 유사하게,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은 평등주의가 낮은

문화에서 행복을 증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Sortheix & Schwartz, 2017). 평등주의가 낮은 문화에서는 타인과의 협력보다 경쟁이 개인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속성 및 자질의 행복 예측력이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이 지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경쟁적 환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가설을 지지해 주는 대표적인 예로 인구 밀도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인구 밀도는 정해진 공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수로, 환경 내 경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서로 꼽힌다(Sng et al., 2018). 따라서 인구가 밀집된 환경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당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질의 중요성 또한 상승한다(Tan et al., 2020). 실제로, 인구 밀도가 높은(vs. 낮은)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교육 등 자신의 미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장에 더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며(Sng et al., 2017),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Li et al., 2011). 소득 불균형에 관한 선행 연구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이 심한 환경에 속한 개인일수록 지위와 관련된 단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지위를 자신의 가치 및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Walasek & Brown, 2019).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의 구성원일수록 지위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고(Paskov et al., 2013; Layte & Whelan, 2014), 지위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Bol et al., 2014; Walasek & Brown, 2015),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소비 선호가 높다. 소득 불균형이 대체로 개인의 사회 비교 경향성과 경쟁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Sommet et al., 2019; Sánchez-Rodríguez et al., 2019)을 고려했을 때, 지각된 경쟁성 또한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람들은 주변 타인을 비롯한 자신이 속한 환경을

경쟁적이라고 여길수록 지위 획득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이 높아지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려 할 것이다(Melita et al., 2021). 삶의 만족도가 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Luhmann & Hennecke, 2017)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은 지위의 가치와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경쟁적 환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따라서 지위의 혜택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이 환경 내 지각된 경쟁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 효과를 한국과 미국이라는 다른 문화에서 검증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동-서양 문화에 따른 다양한 심리·사회적 차이가 잘 알려져 있으며(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et al., 2001; Talhelm, 2020), 문화에 따른 개인/집단주의 경향성은 본 연구가 주목한 지위의 가치, 선행 요인 및 결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Kuwabara et al., 2016; Torelli & Shavitt, 2010; Torelli et al., 2020). 특히, 한국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서열과 위계가 중시되며 지각된 계층 이동성이 낮은 특성을 가진다(김경근, 2021; Kim 2021; Triandis & Gelfand, 1998).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일수록 지위를 자원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이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Locke & Heller, 2017)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조절 효과는 한국의 수직적 구조 아래서만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Anderson et al., 2012; Tay & Diener, 2011), 본 연

구의 조절 효과가 상대적으로 수평적 구조를 가진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을 각각 대표한다고 알려진 한국인(연구 1)과 미국인(연구 2)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 효과가 문화-보편적인 현상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0198-230924-HR-134-02)을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가 지각된 경쟁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토하는데 있다. 앞서 지위의 대표적인 기능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임을 설명한 바 있다(Bradley & Corwyn, 2002; Sapolsky, 2004). 따라서 지위의 가치와 필요성은 해당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Tan et al., 2020). 따라서 자신이 속한 환경을 경쟁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1에서는 국내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에는 20-70세 한국인 217명이 참여하였으며, 결측값을 가지는 7명을 제외한 21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49.16세($SD = 3.53$)였으며, 여자가 88명(41.9%), 남자가 122명(58.1%)이었다. G*Power(Faul et al., 2007)를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 중간 효과 크기($f^2 = 0.15$)에서 $power(1 - \beta) > .95$ 로 나타나 적정 표본 수

를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

사회경제적 지위

참가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측정하기 위해 MacArthur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를 사용하였다(Adler et al., 2000; 이재호 & 조궁호, 2014). 참가자들은 교육 수준, 소득, 직업에 기반하여 자신의 위치를 제시된 사다리 위에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안내는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사다리가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다리의 가장 윗부분은 최상위 계층을 나타냅니다. 가장 돈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아랫부분은 최하위 계층을 나타냅니다. 가장 돈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남들이 꺼리는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하는 현재 이 사다리에서 어느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옆에 표시해 주십시오.” 사다리에는 총 10개 가로대(1 = 가장 낮은 지위, 10 = 가장 높은 지위)가 있으며, 사다리의 최상층은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하며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경쟁성

지각된 경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urayama와 Elliot(2012)의 지각된 환경 경쟁성(Percieved Enviromental Competitiveness)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이중 언어자의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되었다. 이 척도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다.”를 포함한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목적에 맞게 학급 장면이 아닌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지각으로 문장을 수정(예, 학생 > 사람)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응

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 내 경쟁이 치열하다고 인식함을 나타낸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은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t al., 1985)의 한국어 번안 다섯 문항을 사용해 측정하였다(임남연 외, 2010). 예시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등이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결 과

먼저 변인 간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 예상대로 사회경제적 지위($M = 5.50$, $SD = 1.63$)와 삶의 만족도($M = 3.76$, $SD = 1.2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0.44$, $p < .001$).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일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와 지각된 경쟁성($M = 4.77$, $SD = 0.88$), 지위와 지각된 경쟁성 간의 상관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가 지각된 경쟁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종속 변수에는 삶의 만족도가, 독립변수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 변수에는 지각된 경쟁성이 투입되었다. 붓스트랩(bootstrap) 표본수는 5,000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표

	<i>M(SD)</i>	1	2	3	4	5
1. 성별 (1 = 남자)	1.42(0.50)	-				
2. 나이	49.16(3.53)	-.25***	-			
3. 사회경제적 지위	5.50(1.63)	.03	.07	-		
4. 지각된 경쟁성	4.77(0.88)	-.03	.14*	.02	-	
5. 삶의 만족도	3.76(1.21)	.01	-.09	.44***	-.03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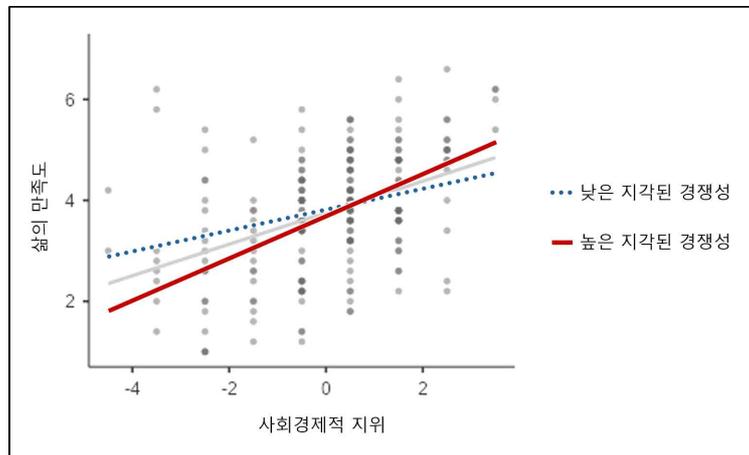


그림 1. 지각된 경쟁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관계 (연구 1)

제적 지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b = .31$, $SE = .05$, $p < .001$, $CI_{95} = [0.22, 0.40]$), 지각된 경쟁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7$, $SE = .08$, $p = .44$, $CI_{95} = [-0.23, 0.10]$).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어서 본 연구의 관심사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지각된 경쟁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2$, $SE = .04$, $p = .006$, $CI_{95} = [0.03, 0.21]$.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은 지각된 경쟁성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각된 경쟁성 수준이 높은(+1 SD) 사람의 경우 사회

경제적 지위는 삶의 만족도를 강하게 예측했으며($b = .42$, $SE = .06$, $p < .001$, $CI_{95} = [0.31, 0.53]$), 이러한 경향성은 지각된 경쟁성 수준이 낮은(-1 SD) 사람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b = .21$, $SE = .06$, $p = .001$, $CI_{95} = [0.08, 0.33]$).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성별과 나이를 공변인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b = .32$, $SE = .05$, $p < .001$, $CI_{95} = [0.23, 0.41]$)와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효과($b = .11$, $SE = .04$, $p = .011$, $CI_{95} = [0.03, 0.20]$)가 여전히 유효하였다.

연구 2

연구 1을 통해 환경 내 지각된 경쟁 강도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연구 2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연구 1을 보완, 확장하고자 한다. 첫째, 조절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변인을 고려하여 통제할 것이다. 연구 1에서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바 있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지위, 행복, 그리고 지각된 경쟁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성격 5 요인을 추가로 측정하고자 한다. 가령, 신경증의 예를 들자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 비교나 경쟁에 취약하며(N. Liu et al., 2021; VanderZee et al., 1996), 삶의 만족도가 낮고(Schimmack et al., 2004), 소득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삶의 만족도 판단의 주요한 잣대로 삼는 경향이 있다(Proto & Rustichini, 2015; Soto & Luhmann, 2013). 또한 경쟁적인 기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체로 외향성은 높고 우호성은 낮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Fong et al., 2021; Ross et al., 2003). 따라서 연구 1의 결과가 성격 5 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고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동양의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서열과 위계가 중시된다는 특성을 가진다(김경근, 2021; Triandis & Gelfand, 1998). 따라서 경쟁성에 따른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양상이 한국 문화에 국한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구 2는 상대적으로 평등을 중시하고 수평적인 개인주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본 가설을 재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에 따른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연구 1의 결과가 미국인들에게서는 덜 선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위에 대한 욕구는 인류 보편적이며, 본 연구의 초점이 객관적인 경쟁 강도가 아닌 이에 대한 주관적 지각임을 고

려하면 경쟁성의 조절 효과는 연구 2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2에는 MTurk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에는 20-63세 남녀 참가자 총 28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결측값을 가지는 4명을 제외한 총 282명(여자 = 175, 남자 = 107)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8.73세, 표준 편차는 7.74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인종은 유럽계 미국인 206명(73%), 아프리카계 미국인 41명(14.6%), 라틴계 미국인 19명(6.7%), 아시아계 미국인 13명(4.6%)과 그 외 3명(1.1%)으로 집계되었다. G*Power(Faul et al., 2007)를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 중간 효과 크기($f^2 = 0.15$)에서 $power(1 - \beta) > .95$ 로 나타나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

사회경제적 지위

연구 1과 동일한 MacArthur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를 사용하였다(Adler et al., 2000). 참가자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평정하였다.

지각된 경쟁성

연구 1과 동일한 Murayama와 Elliot(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으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0.83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연구 1과 동일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t al., 1985)를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0.91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

본 연구의 공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을 함께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에 더하여 성격 5 요인을 측정하였다. 성격 5 요인은 Gosling 등(2003)의 10문항 성격 척도(Ten-Item Personality Inventory; TIPI; Gosling, et al., 2003)를 활용하였다. 이는 타 성격 척도들보다 내적 일치도가 낮은 경향이 있지만, 적정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효율적인 척도로 평가된다(Wood & Hampson, 2005). 참가자들은 총 2개의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진 10개 문항(예,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차분하다, 감정의 기복이 적다)에 대해 평소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결 과

본 연구 가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긍정적 관계가 지각된 경쟁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다. 먼저 변인 간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2),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M = 5.77, SD = 1.83$)는 삶의 만족도($M = 4.98, SD = 1.39$)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0.41, p < .001$. 또한, 지각된 경쟁성($M = 5.02, SD = 1.16$)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 상관($r = 0.15, p = .011$)을 보였으나,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r = -.05, ns$). 성차가 나타난 변인은 없었다.

이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지각된 경쟁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종속 변수에는 삶의 만족도가, 독립변수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 변수에는 지각된 경쟁성이 투입되었다. 붓스트랩(bootstrap) 표본수는 5,000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b = .31, SE = .04$,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표

	<i>M(SD)</i>	1	2	3	4	5	6	7	8	9
성별(1 = 남자)	1.62(.49)	-								
2. 나이	38.73(7.74)	-.11	-							
3. 개방성	4.85(1.31)	-.14*	.01	-						
4. 성실성	5.44(1.32)	-.13*	.04	.37***	-					
5. 외향성	3.70(1.52)	-.08	.02	.38***	.05	-				
6. 우호성	5.24(1.29)	.01	.13*	.31***	.43***	.05	-			
7. 신경증	3.10(1.45)	.30***	-.12	-.22***	-.43***	-.20**	.42***	-		
8. 사회경제적 지위	5.77(1.83)	.00	-.09	-.13*	-.16**	.10	-.28***	.03	-	
9. 지각된 경쟁성	5.02(1.16)	-.04	-.15*	-.01	-.20**	.08	-.19**	.13*	.15*	-
10. 삶의 만족도	4.98(1.39)	-.02	-.13*	-.01	.14*	.22***	.00	-.23***	.41***	.05

* $p < .05$, ** $p < .01$, *** $p < .001$, 성별(1 = 남성, 2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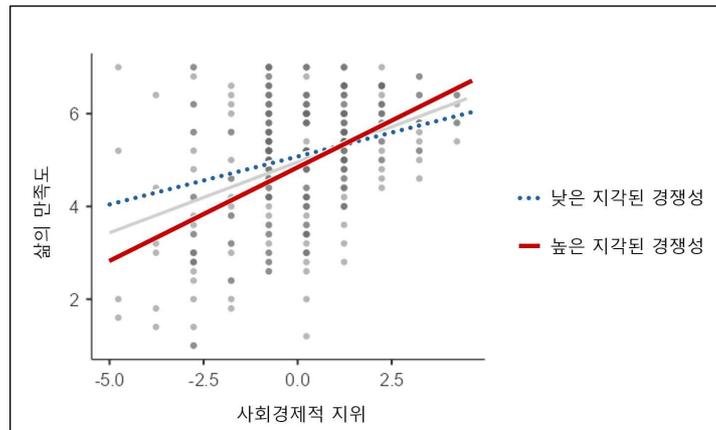


그림 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효과 (연구 2)

$p < .001$, $CI_{95} = [0.22, 0.39]$), 지각된 경쟁성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b = -.11$, $SE = .07$, $p = .09$, $CI_{95} = [-0.24, 0.02]$).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지각된 경쟁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9$, $SE = .04$, $p < .05$, $CI_{95} = [0.02, 0.16]$. 구체적으로, 지각된 경쟁성이 높은(+1 SD) 사람에게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을 강하게 예측했으나($b = .41$, $SE = .05$, $p < .001$, $CI_{95} = [0.30, 0.51]$), 이러한 경향성은 지각된 경쟁성이 낮아질수록(-1 SD) 약해졌다($b = .21$, $SE = .06$, $p < .01$, $CI_{95} = [0.08, 0.33]$). 추가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과 성격 5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고서도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b = .30$, $SE = .04$, $p < .001$, $CI_{95} = [0.21, 0.38]$)와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효과($b = .07$, $SE = .03$, $p = .048$, $CI_{95} = [0.00, 0.13]$)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논의

인간은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를 가진다. 높은 지위는 더 나은 교육 환경, 재정 안정성, 사회적 영향력 등 번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오랫동안 개인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손꼽혀 왔다(Barger et al., 2009; Diener, 1984; Tan et al., 2020). 그렇다면 이러한 지위의 심리적 혜택은 언제, 누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그 단서를 개인이 속한 환경 내 '경쟁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위가 제공하는 자원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은 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국인(연구 1)과 미국인(연구 2)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예상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자신이 속한 환경이 경쟁적이라고 여길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성의 조절 효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나이, 성별, 결혼 여부)과 성격을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경쟁성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 환경 내 경쟁성에 대한 지각, 사회 구조적

특성을 아우르는 다면적 개념이다(Brown et al., 1998; Murayama & Elliot,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른 지각된 경쟁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의 심리 내적 특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 성취 상황에서 타인과 겨루고자 하는 기질적 욕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Spence & Helmreich, 1978; Ryckman et al., 1990), 이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속한 환경 내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Elliot et al., 2018). 성격 5 요인은 지위와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기질적 경쟁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예, Fletcher & Nusbaum, 2008; Ross et al., 2003)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성격의 영향력을 고려한 이후에도 환경 내 경쟁성에 대한 인식이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환경 내 경쟁성의 조절 효과가 단순히 기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지위와 관련된 전통적인 환경 요인인 문화도 함께 탐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의미와 기능은 그것이 속한 문화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Miyamoto, 2013; Schooler, 2007; Snibbe & Markus, 2005; Wilson, 2010), 그동안 지위 관련 심리적 특성 및 가치에 대한 문화 차도 활발히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Curhan et al., 2014; Miyamoto et al., 2018; Naoi & Schooler, 1985; Park et al., 2013). 경쟁성의 조절 효과가 계층 이동성, 개인/집단주의, 수평/수직적 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문화권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 그러나 지각된 경쟁성에 따른 지위-행복 관련성에서 나타난 문화 보편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기제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의 경우에는 성취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나 자유감 등 지위

가 제공하는 개인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이득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나 존경, 협력 등 지위가 제공하는 관계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인 이득도 그 못지않게 중시할 수 있다(Gregg et al., 2017; Miyamoto et al., 2018; Wojciszke et al., 2011). 후속 연구에서는 경쟁성에 따른 지위와 행복의 관련성이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심리적 이득이 환경 내 가치 및 유용성에 달려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위의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를 뒷받침해 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위 계기판 이론(hierometer theory; Mahadevan et al., 201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기준으로 자아 가치를 평가한다. 즉,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존감이 함께 상승하거나 하락함으로써, 자존감은 개인이 집단 내 어떤 위치에 자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계기판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존감은 지위 추구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승산 없는 지위 추구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도전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 높은 지위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 및 재생산 등 다양한 이득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손실과 위험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위 계기판 이론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안한다. 가령, 지위 계기판 이론을 부정적 정서에 확대 적용한 선행 연구들(예, Mahadevan et al., 2023a; Mahadevan et al., 2023b)은 이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사회 계층 이론(social rank theory, Gilbert, 1992; Price et al., 2007)에서는 부정적 정서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 및 서열을 강조한다. 인간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필연적이며,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거나 적절한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이것이 우울, 불안, 수치심 등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Wetherall et

1) 문화(0=미국, 1=한국), 지각된 경쟁성,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3$, $SE = .06$, $p = .57$, $CI95 = [-0.15, 0.08]$).

al., 2019). 자존감이나 정서가 삶 전반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Orth & Robins, 2013; Saint-Georges & Vaillancourt, 2020), 계기판과 관련된 주요 논리들은 삶의 만족도에도 유사하게 접목될 수 있다.

요컨대, 사회경제적 지위는 삶의 적응과 변형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이에 우리의 자기 및 삶 전반에 대한 평가는 지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계기판 이론이 옳다면, 지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그에 따른 심리적 반응(예, 행복)은 자원 확보가 강조되는, 즉 지위로 인한 이득 또는 손해가 큰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 내 지각된 경쟁성의 조절 효과를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위 계기판 이론은 자존감을 집단 내 위치로 설명하는 반면, 전통적인 사회 계기판 이론(sociometer theory; Leary, 1999, 2005)은 자존감을 사회적 소속의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집단 내 수직적 위치인 지위는 수평적인 소속과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Anderson et al., 2006; Anderson et al., 2008; Janse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절 효과가 소속감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하는 것은 좋은 후속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에 한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각된 경쟁성이 정서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긍정 및 부정 정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삶의 조건들이 정서적 안녕감보다 인지적 안녕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Howell & Howell, 2008; Luhmann et al., 2011; Ng & Diener, 2014)을 고려했을 때, 경쟁적 환경에서 지위가 제공하는 이점 및 그로 인한 심리적 혜택이 긍정 정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른 지위는 객관적 조건에 기반을 둔 개인의 주관적 평가

로, 긍정 정서의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꼽히는 심리적 요소(예, 자존감, 통제감 등) 및 사회적 요소(예,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신뢰 등)를 모두 내포한다(Johnson & Krueger, 2005).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에 각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경쟁적인 사회일수록 높은 지위를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우선 본 횡단 자료에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행복의 예측 변인인 동시에, 결과 변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해 본 결과, 연구 2에서 행복을 예측 변인으로 한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5$, $SE = .06$, $p = .006$, $CI_{95} = [0.04, 0.26]$). 따라서 추후 개인 내 변화 분석을 통해 경쟁적이었다고 느낀 날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또는 실험을 통해 인과적 관련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절 효과 현상은 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경쟁적 환경에서의 지위-행복 간 밀접한 관련성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낮은 지위로 인한 손실이나 결핍이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적인 환경 속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안녕감 저하를 설명하는 기체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이를 완충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셋째, 경쟁성에 대한 지각은 대체로 심리적 부적응의 예측 변인(Wilkinson & Pickett, 2017)으로 여겨졌으나, 이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경쟁성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1, 2). 이는 지각된 경쟁성이 다양한 조절 변인에 의해 서로 다른 심리적 결과를 빚어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

례로, 개인의 동기(접근 vs. 회피) 성향(Murayama & Elliot, 2012)을 들 수 있다. 지각된 경쟁성은 회피 동기를 유발하는 일종의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각된 경쟁성은 보상을 수반하는 도전과 자극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Murayama와 Elliot(2012)은 메타 연구를 통해 기질적 경쟁성, 지각된 경쟁성, 경쟁적인 환경과 개인의 동기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접근적이고 진취적인 동기가 있을 때는 성취와 보상에 대한 욕구로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적인 동기가 있을 때는 지위에 대한 불안 및 위협에 대한 민감성으로 안녕감이 저하될 수 있다(Corr & Krupić, 2017; Elliot & Thrash, 2002; Sommet & Elliot, 2023b).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맥락에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내 개인의 위치에 관해 묻는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지위를 다루었지만, 많은 연구가 의미 있는 소규모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관계적(sociometric) 지위가 자존감 및 행복에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Mahadevan et al., 2021). 따라서 지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달리하여 본 연구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행복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경험을 중심으로 지위의 혜택을 다루었다. 그러나 지위가 개인 수준을 넘어 어떤 집단 수준의 이득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경쟁성 지각이 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위는 집단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 및 번영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하지만(Bendersky & Hays, 2012; Griskevicius et al., 2010; Willer 2009), 이와 동시에 주의를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쏟도록 이끌으로써 친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agee & Smith, 2013).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 보고에 근거한 주관적 측정치를 사용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대체로 정확하게 판단하며, 객관적 지위와 이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상당 부분 수렴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한 것이지만,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위(예, 동료 지명 절차; Anderson et al., 2001)를 통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겠다.

저자 소개

김다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이다.

한현섭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적 배제와 외로움, 행복이다.

김희원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석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대인지각이다.

이초원, 유민서, 조혜린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윤이재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학부를 졸업하였다.

이화령은 전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정서와 유대감이다.

신지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간의 정서 및 사회적 행동을 기능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김경근 (2021). 한국사회의 서열 중시 문화: 기원, 동인 및 교육적 유산. *교육사회학연구*, 31(4), 33-69.
- 심경옥, 전우영 (2015). 지위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위계협상전략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조정 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15-40.

- 이재호, 조공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1-26.
-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 Abele, A. E., Hagmaier, T., & Spurk, D. (2016). Does career success make you happy? The mediating role of multiple subjective success evalua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 1615-1633.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nderson, C., Ames, D. R., & Gosling, S. D. (2008). Punishing hubris: The perils of overestimating one's status in a 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 90-101.
- Anderson, C., Hildreth, J. A. D., & Howland, L. (2015). Is the desire for status a fundamental human motiv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41(3), 574-601.
- Anderson, C., John, O. P., Keltner, D., & Kring, A. M. (2001). Who attains social status? Effects of personality and physical attractiveness in so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16-132.
- Anderson, C., Kraus, M. W., Galinsky, A. D., & Keltner, D. (2012). The local-ladder effect: Soci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7), 764-771.
- Anderson, C., Srivastava, S., Beer, J. S., Spataro, S. E., & Chatman, J. A. (2006). Knowing your place: self-perceptions of status in face-to-face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6), 1094-1110.
- Barger, S. D., Donoho, C. J., & Wayment, H. A. (2009).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race/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to life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Quality of Life Research*, 18, 179-189.
- Baum, A., Garofalo, J. P., & Yali, A. M. (1999).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stress: does stress account for SES effects on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1), 131-144.
- Belmi, P., Neale, M. A., Reiff, D., & Ulfe, R. (2020). The social advantage of miscalibrated individual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overconfid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class-based ine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8(2), 254-282.
- Bendersky, C., & Hays, N. A. (2012). Status conflict in groups. *Organization Science*, 23(2), 323-340.
- Berdahl, J. L., & Martorana, P. (2006). Effects of power on emotion and expression during a controversial group discuss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4), 497-509.
- Berman, M. G., Jonides, J., & Kaplan, S. (2008). The cognitive benefits of interacting with nature. *Psychological Science*, 19(12), 1207-1212.
- Bjornsdottir, R. T., & Rule, N. O. (2017). The visibility of social class from facial c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4), 530-546.
- Blascovich, J., & Mendes, W. B. (2000). Challenge and threat appraisals: The role of affective cues. In J. P. Forgas (Ed.), *Feeling and thinking: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gnition* (pp. 5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 T., Lancee, B., & Steijn, S. (2014). Income inequality and gambling: a panel study in the

- United States (1980-1997). *Sociological Spectrum*, 34(1), 61-75.
- Boyce, C. J., Brown, G. D., & Moore, S. C. (2010). Money and happiness: Rank of income, not income, affect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4), 471-475.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 Brown, S. P., Cron, W. L., & Slocum Jr, J. W. (1998). Effects of trait competitiveness and perceived intraorganizational competition on salesperson goal setting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2(4), 88-98.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e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1), 1-14.
- Chen, C., Xu, R. H., Wong, E. L. Y., & Wang, D. (2022).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care needs,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from a Chinese rural population cohort, 2012-2018. *Scientific Reports*, 12(1), 14129.
- Cheung, F., & Lucas, R. E. (2015). When does money matter most?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over the life course. *Psychology and Aging*, 30(1), 120-135.
- Cooper, D. C., Milic, M. S., Mills, P. J., Bardwell, W. A., Ziegler, M. G., & Dimsdale, J. E. (2010). Endothelial function: the impact of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on flow-mediated dilation.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9(3), 222-231.
- Corr, P. J., & Krupić, D. (2017). Motivating personality: Approach, avoidance, and their conflict. In A. Elliott (Ed.), *Advances in Motivation Science* (pp. 39-90). Cambridge, MA: Elsevier Academic Press.
- Crede, J., Wirthwein, L., McElvany, N., & Steinmayr, R. (2015).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parents' educ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Article 52.
- Curhan, K. B., Levine, C. S., Markus, H. R., Kitayama, S., Park, J., Karasawa, M., Kawakami, N., Love, G. D., Coe, C. L., & Miyamoto, Y. (2014). Subjective and objective hierarchies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logical well-being: A US/Japan comparis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8), 855-86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Tay, L., & Oishi, S. (2013). Rising incom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2), 267-276.
- Easterlin, R. A.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473), 465-484.
- Elliot, A. J., Jury, M., & Murayama, K. (2018). Trait and perceived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in achievement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86(3), 353-367.
- Ellio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818.
- Faul, F., Erdfelder, E., Lang, A.-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irebaugh, G., & Schroeder, M. B. (2009). Does your neighbor's income affect your happiness?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3), 805-831.
- Fletcher, T. D., & Nusbaum, D. N. (2008). Trait competitiveness as a composite variable: Linkages with facets of the big-f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4), 312-317.
- Fong, M., Zhao, K., & Smillie, L. D. (2021). Personality and competitiveness: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their aspects, predict self-reported competitiveness and competitive bidding in experimental auc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9, 109907.
- Foulsham, T., Cheng, J. T., Tracy, J. L., Henrich, J., & Kingstone, A. (2010). Gaze allocation in a dynamic situation: Effects of social status and speaking. *Cognition*, 117(3), 319-331.
- Ghaed, S. G., & Gallo, L. C. (2007). Subjective social status, o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cardiovascular risk in women. *Health Psychology*, 26(6), 668-674.
- Gilbert, P. (1992). *Depression: The Evolution of Powerlessnes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Gillath, O., Bahns, A. J., Ge, F., & Crandall, C. S. (2012). Shoes as a source of first impress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4), 423-430.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Jr,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504-528.
- Gregg, A. P., Mahadevan, N., & Sedikides, C. (2017). Intellectual arrogance and intellectual humility: Correlational evidence for an evolutionary-embodied-epistemological account.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1), 59-73.
- Griskevicius, V., Tybur, J. M., & Van den Bergh, B. (2010). Going green to be seen: status, reputation, and conspicuous conser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3), 392-404.
- Gruenfeld, D. H., & Tiedens, L. Z. (2010). Organizational preferences and their consequences.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pp. 1252-1287). John Wiley & Sons, Inc..
- Han, H., Kim, J. P., & Shin, J. E. (2023). Pathogen (but not other) threat attenuates the extraversion-positive affect lin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3, 112305.
- Hangen, E. J., Elliot, A. J., & Jamieson, J. P. (2016). The opposing processes model of competition: Elucidating the effects of competition on risk-taking. *Motivation Science*, 2(3), 157-170.
- Howell, R. T., & Howell, C. J. (2008). The relation of economic status to subjective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4(4), 536-560.
- Hurd, P. L. (2006). Resource holding potential, subjective resource value, and game theoretical models of aggressiveness signalling.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41(3), 639-648.
- Jansen, W. S., Otten, S., van der Zee, K. I., & Jans, L. (2014). Inclusi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4), 370-385.
- John, D. A., De Castro, A. B., Martin, D. P., Duran, B., & Takeuchi, D. T. (2012). Does an immigrant health paradox exist among Asian Americans? Associations of nativity and occupational class with self-rated health and mental disorders. *Social Science & Medicine*, 75(12), 2085-2098.
- Johnson, W., & Krueger, R. F. (2005). Higher perceived life control decreases genetic variance in physical health: evidence from a national twi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65-173.
- Jokela, M., Bleidorn, W., Lamb, M. E., Gosling, S. D., & Rentfrow, P. J. (2015). Geographically varying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life

- satisfaction in the London metropolitan are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3), 725-730.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38), 16489-16493.
- Kenrick, D. T., Griskevicius, V., Neuberg, S. L., & Schaller, M. (2010). Renovating the pyramid of needs: Contemporary extensions built upon ancient founda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3), 292-314.
- Kim, H. (2021).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the role of education in Korea. In D. Neumark, Y. Kim, & S.-H. Lee (Eds.), *Human capital policy: Reducing inequality, boosting mobility and productivity* (pp. 12-54). Edward Elgar Publishing.
- Kraus, M. W., Park, J. W., & Tan, J. J. (2017). Signs of social class: The experience of economic inequality in everyday lif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3), 422-435.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Kuwabara, K., Yu, S., Lee, A. J., & Galinsky, A. D. (2016). Status decreases dominance in the West but increases dominance in the East. *Psychological Science*, *27*(2), 127-137.
- Lachman, M. E., & Weaver, S. 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63-773.
- Lantz, P. M., House, J. S., Mero, R. P., & Williams, D. R. (2005). Stress, life events,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health: results from the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3), 274-288.
- Layte, R., & Whelan, C. T. (2014). Who feels inferior? A test of the status anxiety hypothesis of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4), 525-535.
- Leary, M. R. (1999). Making sense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8*(1), 32-35.
- Leary, M. R. (2005). Sociometer theory and the pursuit of relational value: Getting to the root of self-esteem.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6*(1), 75-111.
- Leary, M. R., Cottrell, C. A., & Phillips, M. (2001). Deconfounding the effects of dominance and social acceptance o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898-909.
- Leary, M., Jongman-Sereno, K., Diebels, K. (2014). The Pursuit of Status: A Self-presentational Perspective on the Quest for Social Value. In: Cheng, J., Tracy, J., Anderson, C. (Eds.), *The Psychology of Social Status*. (pp. 159-178). Springer, New York: NY.
- Leavitt, H. J. (2005). *Top down: Why hierarchies are here to stay and how to manage them more effectively*.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Li, N. P., Patel, L., Balliet, D., Tov, W., & Scollon, C. N. (2011). The incompatibility of materialism and the desire for children: Psychological insights into the fertility discrepancy among modern count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 391-404.
- Liu, G., Liu, W., Zheng, X., & Li, J. (2023).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evidence from a bidirectional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Frontiers in Psychiatry*, *14*, 1264174.
- Liu, N., Zhou, L., Li, A. M., Hui, Q. S., Zhou, Y. R., & Zhang, Y. Y. (2021). Neuroticism and risk-taking: the role of competition with a

- former winner or los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9, 110917.
- Liu, S., Lithopoulos, A., Zhang, C. Q., Garcia-Barrera, M. A., & Rhodes, R. E. (2021). Personality and perceived stress during COVID-19 pandemic: Testing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threat and effic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110351.
- Locke, K. D., & Heller, S. (2017). Communal and agentic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motives predict preferences for status versus pow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1), 71-86.
- Luhmann, M., & Hennecke, M. (2017). The motivational consequences of life satisfaction. *Motivation Science*, 3(1), 51-75.
- Luhmann, M., Schimmack, U., & Eid, M. (2011). Stability and vari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2), 186-197.
- Magee, J. C., & Smith, P. K. (2013). The social distance theory of pow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7(2), 158-186.
- Mahadevan, N., Gregg, A. P., & Sedikides, C. (2019). Is self-regard a sociometer or a hierometer? Self-esteem tracks status and inclusion, narcissism tracks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3), 444-466.
- Mahadevan, N., Gregg, A. P., & Sedikides, C. (2021). Self-esteem as a hierometer: Sociometric status is a more potent and proximate predictor of self-esteem than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0(12), 2613-2635.
- Mahadevan, N., Gregg, A. P., & Sedikides, C. (2023). Daily fluctuations in social status, self-esteem, and clinically relevant emotions: Testing hierometer theory and social rank theory at a within-person level. *Journal of Personality*, 91(2), 519-536.
- Mahadevan, N., Gregg, A. P., & Sedikides, C. (2023). How does social status relate to self-esteem and emotion? An integrative test of hierometer theory and social rank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52(3), 632-656.
- Maslow, A. H. (1943). Preface to motivation theory. *Psychosomatic medicine*, 5(1), 85-92.
- Mast, M. S., & Hall, J. A. (2004). Who is the boss and who is not? Accuracy of judging statu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8, 145-16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G. R. Goethals & J. Strauss (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Self* (pp. 18-48). New York, NY: Springer-Verlag.
- Marmot, M. G. (2004). *The status syndrome: How social standing affects our health and longevity*. New York, NY: Henry Holt.
- Martens, D., Gutscher, H., & Bauer, N. (2011). Walking in "wild" and "tended" urban forests: Th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1), 36-44.
- Melchior, M., Chastang, J.-F., Head, J., Goldberg, M., Zins, M., Nabi, H., & Younès, N. (2013). Socioeconomic position predicts long-term depression trajectory: a 13-year follow-up of the GAZEL cohort study. *Molecular Psychiatry*, 18(1), 112-121.
- Melita, D., Willis, G. B., & Rodríguez-Bailón, R. (2021). Economic inequality increases status anxiety through perceived contextual competitiveness. *Frontiers in Psychology*, 12, 637365.
- Miyamoto, Y. (2013). Culture and analytic versus holistic cognition: Toward multilevel analyses of cultural influenc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131-188.

- Miyamoto, Y., Yoo, J., Levine, C. S., Park, J., Boylan, J. M., Sims, T., Markus, H. R., Kitayama, S., Kawakami, N., & Karasawa, M. (2018). Culture and social hierarchy: Self-and other-oriented correlates of socioeconomic status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5*(3), 427-445.
- Murayama, K., Elliot, A. J., & Jury, M. (2021). Motivational dynamics underlying competition: The opposing processes model of competition and performance. In S. M. Garcia, A. Tor, & A. J. Elliot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Competition* (pp. 189-209). Oxford University Press.
- Murayama, K., & Elliot, A. J. (2012). The competition-performance relation: A meta-analytic review and test of the opposing processes model of competition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138*(6), 1035-1070.
- Murray, D. R., & Schaller, M. (2012). Threat (s) and conformity deconstructed: Perceived threat of infectious disease and its implications for conformist attitudes and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2), 180-188.
- Naoui, A., & Schooler, C. (1985). Occupational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4), 729-752.
- Ng, W., & Diener, E. (2014). What matters to the rich and the poor? Subjective well-being, financial satisfaction, and postmaterialist needs across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2), 326-338.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 Oishi, S. (2014). Socioecologic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581-609.
- Oldmeadow, J. A., Platow, M. J., Foddy, M., & Anderson, D. (2003). Self-Categorization, Status, and Social Influ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2), 138-152.
- Orth, U., & Robins, R. W. (2013).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6), 455-460.
- Park, J., Kitayama, S., Markus, H. R., Coe, C. L., Miyamoto, Y., Karasawa, M., Curhan, K. B., Love, G. D., Kawakami, N., Boylan, J. M., & Ryff, C. D. (2013). Social status and anger expression: The cultural moderation hypothesis. *Emotion, 13*(6), 1122-1131.
- Paskov, M., Gërkhani, K., & Van de Werfhorst, H. G. (2013). *Income inequality and status anxiety* (GINI Discussion Paper No. 90). Amsterdam, Netherlands: The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r Studies (AIAS).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Price, J. S., Gardner Jr, R., Wilson, D. R., Sloman, L., Rohde, P., & Erickson, M. (2007). Territory, rank and mental health: The history of an idea. *Evolutionary Psychology, 5*(3).
- Proto, E., & Rustichini, A. (2015). Life satisfaction, income and personali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8*, 17-32.
- Ridgeway, C. L. (1984). Dominance, performance, and status in groups: A theoretical analysis. *Advances in group processes, 1*, 59-93.
- Ross, S. R., Rausch, M. K., & Canada, K. E. (2003).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five-factor model: Individual differences in achievement orientation. *Journal of Psychology, 137*, 323-337.
- Ryckman, R. M., Hammer, M., Kaczor, L. M.,

- & Gold, J. A. (1990). Construction of a hypercompetitive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630-639.
- Saint-Georges, Z., & Vaillancourt, T. (2020). The temporal sequence of depressive symptoms, peer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across adolescence: Evidence for an integrated self-perception driven mode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2*(3), 975-984.
- Salinas-Jiménez, M. D. M., Artés, J., & Salinas-Jiménez, J. (2013). How do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al and wage-earner statuses affect life satisfaction? A gender perspective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 367-388.
- Sánchez-Rodríguez, Á., Willis, G. B., Jetten, J., & Rodríguez-Bailón, R. (2019). Economic inequality enhances inferences that the normative climate is individualistic and compet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6), 1114-1127.
- Santos, H. C., Varnum, M. E., & Grossmann, I. (2017). Global increases in individualism. *Psychological Science, 28*(9), 1228-1239.
- Sapolsky, R. M. (2004). Social status and health in humans and other animal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3*, 393-418.
- Schimmack, U., Schupp, J., & Wagner, G. G. (2008).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and personality on the affective and cognitive component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 41-60.
- Schimmack, U., Oishi, S., Furr, R. M., & Funder, D. C. (2004). Pers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 facet-lev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1062-1075.
- Schooler, C. (2007).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The relevance of social structure to cultural psychology.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370-388). The Guilford Press.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703-720.
- Sng, O., Neuberg, S. L., Varnum, M. E. W., & Kenrick, D. T. (2018). The behavioral ecology of cultural psychological variation. *Psychological Review, 125*(5), 714-743.
- Sng, O., Neuberg, S. L., Varnum, M. E. W., & Kenrick, D. T. (2017). The crowded life is a slow life: Population density and life history strate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5), 736-754.
- Sommet, N., & Elliot, A. J. (2023). A competitiveness-based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psychology of income inequa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32*(4), 318-327.
- Sommet, N., & Elliot, A. J. (2023). Opposing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on health: The role of perceived competitiveness and avoidance/approach motiv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3*(1), 61-77.
- Sommet, N., Elliot, A. J., Jamieson, J. P., & Butera, F. (2019). Income inequality, perceived competitiveness, and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87*(4), 767-784.
- Sortheix, F. M., & Schwartz, S. H. (2017). Values that underlie and undermine well-being: Variability across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1*(2), 187-201.
- Soto, C. J., & Luhmann, M. (2013). Who can buy happiness? Personality traits moderate the effects of stable income differences and income fluctuations on life satisfac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1), 46-53.
- Spence, J. & Helmreich, R.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 Correlates, and Antecedents*. New York, USA: University of Texas Press.
- Subramanyam, M. A., Diez-Roux, A. V., Hickson, D. A., Sarpong, D. F., Sims, M., Taylor Jr, H. A., Williams, D. R., & Wyatt, S. B. (2012). Subjective social status and psychosocial and metabolic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African Americans in the Jackson Heart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74(8), 1146-1154.
- Talhelm, T. (2020). Emerging evidence of cultural differences linked to rice versus wheat agricultur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2, 81-88.
- Tan, J. J., Kraus, M. W., Carpenter, N. C., & Adler, N. E.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11), 970-1020.
- Tay, L., & Diener, E. (2011). Needs and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54-365.
- Torelli, C. J., Leslie, L. M., To, C., & Kim, S. (2020). Power and status across cultur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3, 12-17.
- Torelli, C. J., & Shavitt, S. (2010). Culture and concepts of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4), 703-723.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128.
- VanderZee, K., Buunk, B., & Sanderman, R.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processes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5), 551-565.
- Walasek, L., Brown, G.D.A. (2019).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Status: The Social Rank and Material Rank Hypotheses. In Jetten, J., Peters, K.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equality* (pp. 235-248). Cham: Springer.
- Walasek, L., & Brown, G. D. (2015). Income inequality and status seeking: Searching for positional goods in unequal US states. *Psychological Science*, 26(4), 527-533.
- Wetherall, K., Robb, K. A., & O'Connor, R. C. (2019). Social rank theory of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of self-perceptions of social rank and their relationship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e risk.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6, 300-319.
- Willer, R. (2009). Groups reward individual sacrifice: The status solution to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23-43.
- Wilkinson, R. G., & Pickett, K. E. (2017). The enemy between us: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1), 11-24.
- Wilson, W. J. (2010). Why both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matter in a holistic analysis of inner-city pover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9(1), 200-219.
- Wojciszke, B., Baryla, W., Parzuchowski, M., Szymkow, A., & Abele, A. E. (2011). Self-esteem is dominated by agentic over communal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5), 617-627.
- Woods, S. A., & Hampson, S. E. (2005). Measuring the Big Five with single items using a bipolar response sca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5), 373-390.
- Yu, S., & Xie, Y. (2017). Preference effects on friendship choice: Evidence from an online field experiment. *Social Science Research*, 66, 201-210.

1 차원고접수 : 2024. 02. 14.

수정원고접수 : 2024. 04. 16.

최종게재결정 : 2024. 05. 02.

Socioeconomic status becomes a stronger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in perceived competitive environments

Da-eun Kim Hyunseop Han Heewon Kim Chowon Lee Minseo You
Ijae Yun Hyerin Cho Hwaryung Lee Ji-e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eking status is a fundamental human motive. Therefore, individuals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S) generally report greater life satisfaction. A key factor contributing to this phenomenon includes increased accessibility to resource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and financial assets. Given that status serves as a means to expand opportunities and influence over essential resources for individual functioning and prosperity, it is presumed that this becomes particularly evident in environments with intense competition for resources. This study posit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SES and life satisfaction would be more pronounced in individuals experiencing a heightened competitive environment, where the benefits of a higher status are accentuated. Two separate studies were conducted, confirming this hypothesis. Individuals perceiving their environment as more competitive evaluated their lives more positively when possessing higher SES. This phenomenon was consistent among participants in both South Korea (Study 1) and the United States (Study 2). By demonstrating that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SES hinge on the perceived competitiveness of one's environment, this study lends support to prior research on the functions of status.

Key words : status, socioeconomic status, satisfaction in life, happiness, perceived competitiveness